

날짜: 18 아브 5785 (8 월 12 일, 2025)

토라 문: 지켜 행하면

Topic: 신성한 특서, 위대한 사람들

산헤드린의 수장이셨던 시몬 벤 세타흐 랍비 (R' Shimon ben Shetach: 100 BCE-60 BCE)는 한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나귀 한 마리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 나귀의 목에 귀중한 보석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잠 10:22). 그러나 시몬은 “나는 나귀를 샀을 뿐, 보석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답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즉시 그 보석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돌려주었고, 이를 본 그 이스마엘 사람은 “시몬 벤 세타흐의 권능자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관례가 법에 따르면 시몬은 그 보석을 돌려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탈무드에서는 이를 기록하길 “이스라엘의 엘로힘을 찬송하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그에게는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좀더 정검하여 볼 때에, 만일 보석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엘로힘의 성호가 모독 될 위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 남 유다 족속의 신앙의 법도에 맞지도 않기에 반드시 돌려 주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 사람은 시몬 랍비 자신이 아니라 “시몬 벤 세타흐의 엘로힘, 권능자”를 찬송했을까를 숙고합니다. 두브노 마기드(Dubno Maggid)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 달았던 것이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토록 높은 수준의 정직과 이타심에 도달할 수 없다. 만일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여호와께 그 자신을 결속시키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의 속성을 자신의 인격 안에 흡수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점지한 그 순간, 이스마엘 사람은 시몬의 고귀한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의 엘로힘의 위대하신 권능을 엿보았고, “시몬 벤 세타흐 안에서 역사하신 엘로힘, 권능자”를 찬양한 것입니다.

무사르 (Mussar: 도덕적 규범록) 문헌에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놀라운 절제와 겸손,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성경의 역사를 자주 강조하며 다룹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들로 야아콥은 여쩔 수 없는 상황에서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수년간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일했고, 라반이 여러 번 속이며 그의 정당한 몫을 빼앗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또한 열두 지파의 맏아들 르우벤 (Reuben)은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빼앗겼지만, 그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인들은 어디에서 그토록 고귀한 품성을 얻었을까요? 토라는 엘로힘, 권능자께서 인류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창 1:26). 이는 여호와 엘로힘께서 아담 (인류;사람)이라는 영혼 속에 거룩함의 불씨를 불어넣어, 모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 엘로힘과 연결되고 그분의 자비로운 법도를 본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심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 장 9 절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신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여호와 네 권능자의 명령을 지켜 나가며,

여호와와 길로 행한 때이니라”의 말씀과 같이 창조주께 자신을 부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러한 신실 (אֱמוּנָה/아둑)한 근원에서 능력을 끌어내어, 세속적인 안락함을 벗어나서, 이웃과 여호와 엘로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성 있는 현인들 뿐 아니라, 엘로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인 모든 아담,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토라는 우리에게 매우 숭고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복수나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금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자연에서의 본성은 타인이 저지른 모든 불의를 기억하며, 그에 대한 복수에 만족할 것처럼 충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이런 흙의 자연 본능을 규제하고, 보복을 피하며, 심지어 그 사람을 다시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물리력, 감성력, 인지력의 공정한 잣대를 내려 놓는 것에 숙달된 사람의 능력은 자연 세계를 초월함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와 토라를 받아들였을 때, 여호와 권능자께서는 거룩하심 가운데 정하신 뜻을 담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와 계명들을 준행하려 온 힘과 정성을 모았을 때 부여 주시는 초인간적인 신성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세우게 됩니다. 토라는 또한 여호와와 계명들을 신실히 준행할 때에 변방 나라들에게 각인해 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이 모든 규례를 듣는 민족들이 ‘이 위대한 나라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할 것이다. 여호와 우리 엘로힘같이 가까이 계시는 권능자를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신 4:6)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와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와 토라를 지키는 진정한 토라의 현실된 삶은 지극히 존귀하고 숭고하므로써, 그 삶을 목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토라의 신성한 근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이라도,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과 순종의 도를 살아 나가는 나짜림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와 계명은 엘로힘, 권능자께서 부여하여 주신 능력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자연적 인과 관계속의 물리력, 감성력, 지력의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성으로 초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토라를 지키는 사람의 존귀한 행실들은 여호와 엘로힘의 숭고한 속성을 반영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족으로 준행하는 모든 행동은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에서 비롯 되었음이며, 이는 의도적으로 그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육신과 그 안에 흐르는 피를 가진 인간의 진실성을 통해, 사람은 거룩하시고 찬송 받으실 분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다.”

샬롬

“나는 여호와 너희의 엘로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라.”

-레 11:44a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베전 1:16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여호와와의 의는 영원한 의요, 여호와와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시 119:142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약 2:24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가리라,,,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1b-23

*불법;Anti-Torah of YHWH —>Anti-HaMashiach(Anti-Christ)

*베후 3:15-17